

2018.5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8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주)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8.5.29	대전MBC 대회의실	7/11	6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송길현, 김은주, 김종남, 양선희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사장, 이재근 경영기술국장, 박선자 편성제작국장, 신영환 보도국장, 서주석 사업국장, 임세혁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9	7	-	-	16	-	16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5	1	-	16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0건	10건	4, 5, 6월
보도	뉴스 진행 테이블 높이 진행자 맞게	뉴스진행 시 테이블 위치 균형 있게 맞춤	5월
보도	뉴스 품질 시청자들 눈높이에 맞게	달라진 MBC보도 뉴스 “시청자의 눈높이 맞추는 친절한 뉴스” 핵폐기물 관리부실(5/9) 단독보도 외 다수 보도	5월
교양	시사저널 프로그램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 다루어지길	시사플러스 “재활용 폐기물”(5/3), 청년일자리(5/10)“ 등 방송	5월
교양	건강프로그램 요리 코너 배경음악을 내용에 맞게 처리하도록	건강플러스 “두릅(5/12), 양배추(5/19) 콜라비(5/26)” 요리 코너 배경음악 적절하게 활용	5월
보도	TV특강 프로그램 출연자와 방청객 거리 좁혀 소통을 보여주길	TV특강 “감정노동자(5/14), 고전에서 배우다(5/21), 생명을 존중하는 힘(5/28)” 등 방청객과 소통할 수 있게 세팅	5월
보도	시사저널 프로그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시사플러스 “기초생활수급자 살피는 오정동행정복지센터(5/3)” 등 소개	5월
보도	시사토론 프로그램 “재미”를 가미하는 장치를	“서경석의 6.13 돋보기 지방선거를 꽃피우는 동네 민주주의”(4/30) 선거토론 방송에 유명 연예인 등 출연, 토론을 딱딱하지 않게 구성	4월
보도	농촌 환경오염 문제 지속적 보도 필요	뉴스데스크 “농촌쓰레기 소각문제”(6/2) 등 보도	6월
교양	정보프로그램에서 소외계층, 나눔 실천 문화 사례를 보여주길	“생방송 아침이 좋다” 입양, 45년의 만남(5/22) 입양가족 등 소개	5월
보도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특허 관련 보도 지속적으로 해주길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국제심포지엄(4/23), 5G이동 초광대역 서비스 출원 등 방송	4, 5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8. 5. 01.~2019. 4.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비고(임기)
위원장	신성철	KAIST총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과학기술단체	18.05.01~ 19.04.30
	송길현	목요언론인클럽 고문	목요언론인클럽	언론관련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	대전여성정치 네트워크	여성단체	18.05.01~ 19.04.30
위원	함진호	ETRI 표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ETRI	과학기술단체	18.05.01~ 19.04.30
위원	권부남	대전 청소년 위캔 센터장	대전YWCA	청소년단체	18.05.01~ 19.04.30
위원	정대식	금성백조주택 사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18.05.01~ 19.04.30
위원	이용원	월간 토마토 편집인	(사)문화유산올림	문화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은주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종남	대전YWCA 사무총장	대전YWCA	소비자단체	18.05.01~ 19.04.30
위원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학부모단체	18.05.01~ 19.04.30
위원	양선희	대전대학교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관련단체	18.05.01~ 19.04.30

*김경희, 권부남, 정대식, 이용원, 김종남, 양흥모, 양선희 위원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5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재활용폐기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시사플러스 5/3). 대전지역의 재활용폐기물이 어떤 절차로 수집되고 처리되는지의 과정을 잘 알 수 있었고,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쓰레기 대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 인터뷰를 통해 잘 설명되었다. 민관이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도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며, 시민들이 실천해야할 생활과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도 잘 설명되었다.</p> <p>다만, 봄 개편으로 사회자 변경과 전체 셋팅이 바뀌었는데, 오히려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다는 생각이다. 이전에 사회자와 PD가 자리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해나가는 방식이 자연스러웠고 편해보였는데, 혼자 서서 진행하는 방식이 불편해 보이는 측면이 있었다(김종남).</p>	<p>재활용폐기물 관련 주제처럼 뉴스와 달리 상대적으로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사프로그램의 장점을 더욱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p> <p>프로그램 진행 방식의 변경에 대한 의견을 다양할 수 있다고 본다. 다양한 시도의 한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다만, 좀 더 자연스러운 진행과 프로그램 전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다.</p>			
보도	<p>시사토론M(5/6) “6·13 지방선거 10대 의제는? - 대전편”을 시청하였다.</p> <p>대전 의제 10가지(①대전정체성, ②동서격차, ③일자리창출, ④교통정책, ⑤여성정책, ⑥대전시 인구감소, ⑦대전미래교육발전, ⑧학교급식, ⑨사회복지 주요의제, ⑩동네민주주의 실현)를 패널들 차례로 이야기를 나눠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p> <p>전체 방송시간이 48분47초로 앞에서 시민들의 영상시간(약3분)을 제외하고 10대 의제를 4명의 패널이 한마디씩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약1분 정도이다. 중요한 6·13 지방선거의 10대 의제를 다루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의제를 조금 줄여 좀 더 깊은 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 교통정책을 이야기하는 시간에는 트램에 대해 패널들이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사회자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다”라며 급히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 물론 열띤 토론의 장은 아니지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인데 멘트가 약간 부적절해 보인다.</p>	<p>토론회 시간과 성격을 고려한 시간 배분과 맞춤형 토론의제로 균형감 있게 배분하겠다.</p> <p>좋은 평가에 감사드리며 시청자들과의 소통은 물론 전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노력을 더 해나가겠다</p>	○		

	토론시작 전에 보여준 시민들의 영상은 좋았으며, 특히 장애인과 함께하는 방송으로 좋았다(김종남).			
보도	사건 위주의 뉴스를 접하다 보니 따뜻한 미담이 우리 주변에 없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를 보도해주면 우리 이웃이 보다 훈훈해 질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5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 다룬 “가슴으로 키운 12명, 푸른 눈 아빠”는 보기 좋았다. 홍성군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외국인 데이비드 송씨가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은 취재하였다. 5월 가정의 달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 사건의 홍수 속에서 훈훈한 미담의 보도는 발굴하여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함진호).	충남 서해안권을 담당하고 있는 이교선 기자가 발굴한 미담이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훈훈한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는 미담 사례를 (물론 검증을 거쳐) 자주 보도하도록 하겠다.		
보도	“방사성 핵폐기물 관리부실” (뉴스데스크 5/7, 5/8)이 대전MBC 단독보도로 기사화되었다. 연구용 원자로 해체 과정에서 나온 납과 전선 등 다량의 방사성 폐기물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 폐기물 부실 관리가 시민들 건강과 안전을 해치게 한다. 핵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해 경각심을 깨우쳐 주는 기사였다.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을 확인해주는 보도였다. 이런 의미 있는 기사를 기획취재하여 보도해주길 바란다(함진호).	대전MBC는 대전 시민의 안전과 직결한 원자력 안전 문제를 줄곧 주도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지난해 핵폐기물 무단처리와 핵폐기물 저장고 화재 그리고 이번에도 보도한 원자로 등에서 나온 방폐물 실종 사건 역시 시민 안전과 원자력 정책 개선을 위해 깊이 있게 분석 보도하도록 하겠다.	○	
보도	대전·세종·충남의 발전 속도를 보면 청주 국제공항의 역할과 위상이 달라져야 한다. 해외에서 중부권으로 이동하려면 보통 인천 국제공항을 기점으로 해서 내려온다. 불편이 크다. 청주국제공항의 효용과 역할, 서비스 등에 대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중부권 발전을 위해 청주국제공항의 발전적 방안을 '시사토론 M'에서 다루어주면 좋겠다(정대식).	비단 대전, 세종, 충남 권역에 머무르지 않고 중부권을 아우르는 대표 공영방송으로서 청주국제공항은 물론 지역분권 시대 충청권의 역할 및 전국적인 의제 가지도 다뤄보겠다.	○	
교양	TV프로그램 “모든 것 연구소 올랩”이 지역의 중요한 콘텐츠를 잘 담고 있고 구성과 내용 면에서도 좋아 보인다.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다. 출연패널을 가깝게 담은 영상을 보면 광각 렌즈를 활용해 촬영을 해서 그런지 화면상 패널이 쪼개져 보인다. 집중도가 떨어진다. 효과음(3회, 오페라 유령)도 자연스럽게 않	오랜 준비기간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고민 끝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론칭한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기대감도 존재한다. 모든 프로그램이 그럴듯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봐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린다. 지적하신 부분들은 참고해 완성도를 높이	○	

	다. 무령왕릉 관련 멘트에 “일제시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제강점기”가 정확한 표현이다(이용원).	도록 하겠다.			
교양	테마여행 길(5/24)에서 “베짱이의 여름마중”이라는 타이틀로 초등학생의 산양 젓짜기 체험을 영상으로 보여주었다. 초등학생들의 현장체험이라는 좋은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라는 이미지를 주기에 충분하였다. 초등학생 여러 명이 산양 젓짜는 모습이 불편해 보였다. 제작할 때 한 번 더 유의를 하길 바란다(이용원).	지적한 부분 잘 살피겠다. 참고로 이번 개편(6월3일)으로 테마여행 길이 금요일 저녁으로 시간대를 옮긴다. 각 사마다 방송일이 달랐는데 금요일 저녁 시간에 전국 동시 편성을 하게 됐다. 공동제작의 취지를 적극 살리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 많은 관심 바란다.			
교양	대전MBC 프로그램을 통해 출연하는 외국인들을 살펴보았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리나(우즈베키스탄 출신 리포터), “모든 것 연구소 올랩”의 고정 패널 마이클, 보도제작물인 “서경석의 6.13 돋보기 지방선거를 꽃 피우는 동네 민주주의” 패널로 출연한 파비앙(프랑스인) 등이 최근 대전MBC 프로그램에 출연한 외국인들이다. 하얀 얼굴의 백인이 주종을 이룬다. 사회문화적 통합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의 동남아 여성 등도 참여했으면 좋겠다(이용원).	보도 차원에서는 다문화 통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중 기획으로 다문화 가정의 사례를 일 년 내내 수 십차례 보도한 적도 있지만 논외로 하고 토론회 성격이 사회문화통합과 다원성에 대한 주제이면 당연히 시청자 위원이 말씀하신 패널도 고려해 보겠다.		○	
교양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청소년의 달이기도 하다. 보통 방송사 프로그램을 보면 시제에 발맞추어 특집 프로그램이나 정규 프로그램에서 선을 보인다. 대전MBC TV 프로그램을 찾아보니 안타깝게도 청소년의 달에 걸 맞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다. 청소년들이 관심 갖는 것, 청소년들의 꿈, 청소년들의 문제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길 바란다(권부남).	지적 겸허히 수용해 향후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교양	“생방송 아침이 좋다”와 “시사플러스” 진행자가 동일인물이다. 정보 프로그램과 시사프로그램의 성격이 다르다. 성격이 다른 프로그램을 동일 진행자가 사회를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권부남)	회사 인사이동과 남자 아나운서의 결원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며 현재 시사플러스의 경우 새로운 외부 진행자를 선정해 제작하고 있다.		○	
보도	6.13 지방선거로 인해 선거 관련 보도를 많이 접한다. 그러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공약 또한 차별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선택 2018, 판세톡톡-공약 점검 금산군수	“판세톡톡”은 지역 뉴스의 한계성을 극복해 전국 유권자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전MBC를 통해 보도한 선거 보도는 MBC와 네이비가 제휴한 지방선거 특별판을 통해		○	

	<p>편”은 시청자들이 후보자별로 공약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잘 전달해 주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시청자들이 알기쉽도록 전달해주길 바란다(권부남).</p>	<p>다양한 콘텐츠로 서비스되고 있다.</p>			
<p>보도</p>	<p>선거보도를 보면 주로 후보자들의 동정을 중계방송 하듯 소개를 한다. 선거 관련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서 관심 있는 사안으로 “교육문제와 미세먼지”를 꼽았다. 유권자들이 관심 있는 내용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지방선거 관련 보도에서 필요하다. 유권자 입장에서 유권자들이 알고 싶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해 주길 바란다(양흥모).</p>	<p>대전MBC 선거 보도는 후보들의 동정이나 경마식 보도를 최대한 지양하고 지역의 핵심 이슈가 무엇인지 정리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리해 지역의 공약과 관심 키워드를 보도하기도 했다. 유권자의 시각에서 선거보도를 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p>			
<p>보도</p>	<p>세종시에 중앙행정부서가 많이 내려와 있어서 관련 공무원들이 대전MBC 뉴스를 많이 보리라고 본다. 지방선거 이후 선거공약을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이를테면 “원도심 뉴딜 재생사업”을 우리지역이 먼저 예산배정을 받아 시범사업 또는 선도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사업 등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기대해본다(양흥모).</p>	<p>정부세종청사에 중앙부처가 이전하면서 대전MBC를 비롯한 지역 언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문제를 조명한 보도 사안들이 정책 수립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공영방송사 보도 매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p>	○		
<p>보도</p>	<p>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충남교육청의 “찾아가는 노동, 인권 교육”은 의미가 있었다. 이런 보도를 통해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에서 겪은 인권 침해, 현장 실습에서 겪은 차별과 산업현장의 안전문제 성희롱도 인식하며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장에서 소외 받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보살펴주는 기획 취재 뉴스를 제작해주길 바란다(신성철)</p>	<p>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인권이나 노동 관련 현안들은 공교육 단계에서 일찍 교육할수록 감수성이 높아지고 현실적 대처 방법 또한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접근과 시도를 조명해 많은 시청자들이 뉴스 보도를 통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기울이겠다.</p>	○		
<p>교양</p>	<p>“모든 것 연구소 올랩” 구성과 내용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을 적용하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 의제는 “인공지능기술, 무인자동차, 빅데이터, 블록체인, 정밀의학, 로봇, 스마트시티” 등 다양하다. 이를 “모든 것 연구소 올랩” 프로그램에서 어렵지 않으면서 흥미 있게 구성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 지역 연구단지 인력도 활용하면 프로그램이 더욱 꽃이 필 것 같다(신성철).</p>	<p>앞으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격려에 감사드리며 주신의견도 소중히 참고하겠다.</p>	○		

<p>보도</p>	<p>대전MBC 뉴스를 모바일로 접속해 보려고 했는데 잘 연결이 안된다(정대식)</p>	<p>www.tjmbc.co.kr로 접속하면 모바일 기기 종류에 따라 자동으로 모바일 화면을 볼 수 있으며 뉴스와 VO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후 온라인 스트리밍도 볼 수 있다. 대전MBC 보도국에서는 최근, 카카오톡 페이지도 개설하고 선거 보도를 중심으로 네이버에도 기사를 제공해 더욱 다양한 보도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있다.</p>			
-----------	--	---	--	--	--